| 현불 논단 |

한반도 훈풍 지속하기 위해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文 평화 우선 한반도 정책과
美·北 '이익의 조화점' 찾은 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점 작용

4월末 남북정상회담 기대 높아
지속가능한 평화 가능성 커져
한반도 비핵화, 북한 결단 중요

북한, 화해 구축 속도내는 상황
합의불이행 악순환 고리 끊어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올림픽은 다리를 놓을 뿐 결코 벽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예측대로 남과 북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 갖기로 한 데 이어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올림픽 휴전'에 따른 일시적 평화가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 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점'을 찾게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휴전' 개념을 적용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했고,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군사당국회담과 각 분야 회담 개최 등 '1·9 합의'가 만들어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로 남북대화가 이뤄졌다고 자평하면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이후 곧바로 이뤄진 남측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비핵화의지 확인, 북미대화 용의 표명, 전략도발 중단,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초청 등 6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남북관계 복원이 빨라지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대화도 가능해졌다.

남과 북이 예상보다 빨리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다.

북한이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수령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최고 지도자와 담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남과 북이 정상간 상시 소통창구로 핫라인 설치와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북 핵위기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열쇠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론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은 대미 전쟁억제력으로 두고, 2차 공격 능력을 갖기 위한 대량생산 등 미래의 핵을 동결하려는 '부분 인정 부분 동결' 협상을 꿈꾸는 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동결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과거경험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궤도에 단번에 진입하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뜻이라며 속도전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전의 반복된 합의 불이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社說

제주4.3, 범불교적 연구·추모 시급

제주 4.3항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이에 맞춰 제주 4.3항쟁 당시 제주불교계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3월 14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주불교 전문가인 한금순 제주도 문화재위원은 제주4.3항쟁기 제주불교의 수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에 따르면 제주 4.3항쟁 당시 승려 피해는 14개 사찰 소속 승려 16명으로,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명 2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근대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한 스님들로 이들이 희생되면서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도 막대했다. 당시 피해 입은 사찰은 37개소로 전소된 곳만 18곳이다. 전소시킨 후에는 토벌대 주둔소로 활용하거나 면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4.3항쟁은 아프지만 아프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처였다. 연좌제로 인해 폭도로 구분됐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밝힐 수 없던 시절이 매우 길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주 4.3항쟁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 와서 가능했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불교는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민중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후학들의 무지로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사상과 유훈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 4.3항쟁에 대한 불교계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불교 통일기금 조성 필요하다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남북대화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 얼마전까지 북핵문제로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불교계는 10년간의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2009년과 2014년 불교 통일로드맵을 발표하며 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로드맵이 실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남북간의 정치적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남북 대화 국면 속에서 불교계는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의 통일 로드맵은 한계가 도출됐다. 새로운 로드맵은 남북 정치 상황에 영향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가장 큰 과제는 기금 조성이다. 통일전 불교 통일인식 개선, 통일 후 북한 사찰 복원, 신도 조직화 등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불교 각 종단은 종단 산하 기관의 사업에 예산 배정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등 정치변화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로드맵 집행을 위해서 불교 통일기금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미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의 일정부분을 적립하고 있다. 또 이러한 남북협력기금은 통일 이후에는 민족 동질성 회복, 문화유산 복원 등에 쓰일 통일기금으로도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조계종의 경우 일부사찰의 쌀 판매 수익금을 기반하여 북한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사찰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통일기금 조성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불교통일기금 조성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정 스님 8주기 추모 단상

무소유는 살림이다

변택주 작가

"〈무소유〉가 없으면 마치 늘 손목에 걸고 다니던 염주를 잃어버린 것처럼, 평정을 잃는 사람들을 적잖았어요."

소설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를 펴낸 시인 김선우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싶어 애기를 나누다보면 법정 스님과 맞닿는다면서 꺼낸 말씀이다. 이처럼 법정 스님하면 누구나 '무소유'를 떠올린다. 그러나 스님이 가리키는 무소유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는 깊이 살피려드는 사람은 드물다. 스님이 드러낸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쓰면서, 적은 것에 기꺼워하며 살라는 말씀이다.

어떤 분이 스님에게 끝이 날카로운 만년필을 하나 드렸다. 스님은 당신 성깔에 꼭 들어맞는 펜 끝에서 나오는 사각거림을 한껏 누렸다. 그러다가 여행길 만년필 가게서 똑같은 만년필을 만난 스님은 반가운 마음에 하나를 더 샀다. 그런데 웬 걸, 두 개가 되고 나니 하나였을 때 품었던 살뜰함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차!' 싶었던 법정 스님, 새로 산 만년필을 얼른 다른 이에게 쓰라고 건네고 나니 소중함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가볍게 한 말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다. 펜 한 자루를 들고 글을 쓸 때 나머지 한 자루는 쓸모를 잃는다. 그러니까 제 구실을 잃은 펜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쓸모를 '살려' 냈다는 말씀이다. '살림'이 무엇인지 넌지시 드러내 보였다는 은근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살림'은 부처님 가르침 밑절미에 깔려있는 말씀이다. 불자들이 예불 올릴 때마다 다지는 사홍서원, 네 가지 넓은 다짐 가운데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이웃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 '살리기'이다. 그리고 육바라밀, 여섯 가지 으뜸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보시, '지닌 것을 내어주기'이다. '이웃을 다 살리려고, 애써 지어 지닌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불교가 그리는 '바람직한 삶'이라는 말씀이다.

일찍이 원효 스님은 "귀일심원 요익중생, 한마음 뿌리로 돌아가 이웃을 두루 이롭게 한다"고 말씀했다. 이것을 법정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라고 간추리셨다. 맑고 향기롭게는 "중이 밥값이나 하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법정 스님이 팔 걷고 나서서 만든 시민모임이다. '맑고 향기롭게'란 저마다 본디 지닌 맑음을 한껏 드러내, 사회 곳곳에 앓는 이들을 두루 찾아 '살려' 내어 향기롭게 두루 여울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토록 곱씹어 봐도 무소유는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애써 지어들인 모든 것을 내가 쓸 것만 남기고 되돌려 살기 버거워하는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거듭 '살리'라는 말씀이다.

늘 무소유를 드러내며 말씀과 지음이 한결같던 법정 스님, 마지막 가시는 길 또한 만장은 물론 널도 없이 입던 옷 그대로 평소 쓰던 대나무 평상에 누워 불에 드셨다. 무소유는 살림이다.

앞장서 봄을 여는 매화를 보고 사람들은 머지않아 온갖 꽃들이 피어날 것이라며 부푼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깨달음은 온 누리로 이어지는 예고편이다. 그래서 한 겨울에 피는 매화를 '석가모니 눈'이라고 한다. 추위를 떨치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법정 스님 삶 또한 뭇 사람 마음에 찌든 끝 간 데 없는 욕심과 모르는 데서 겪는 시달림을 녹여냈다. 스님이 가신지 어느덧 여덟 해, 세상은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남녘에서 들려오는 매화 소식에 그리움 가득한 날이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